12·12, 5·18 '역사의 비밀' 품은 채 영면

최규하 前 대통령 별세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최규하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80년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0년 8월 16일 사임한 최규하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배웅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80년대 '혼돈 정국'의 중심… 묻힌 비밀들

'신군부 집권과정' 생전 내내 침묵

하야 이후 정치적 발언 삼가…'회고록' 남겼을 가능성도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의 의문들을 고스란히 가슴에 안고 세상을 등졌다. 최 전 대통령은 '10·26'에서 '12·12'와 '5·18'을 거쳐 대통령 하야에 이르는 격동의 시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임 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은둔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최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민중항쟁과 관련된 청문회와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숱한 의혹과 추측들이 제기돼 왔으며, 신군부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신군부의 최대 피해자', 또는 신군부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단죄의 대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10·26 직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군부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 총장을 강제연행했다. 하지만 이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뤄졌다. 이후 최 전 대통령이 정 총장 연행을 사후 재가했으며, 신군부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한 1993년까지 이를 이유로 12·12를 정당화했다.

일부 한국 현대사학자들과 5·18 관련 단체들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의 정권장악 음모와 실행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김대중 씨 등 민주인사들의 검거에 나섰다. 이 대목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확대를 재가했을 뿐만 아니라 80년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를 발족,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임명, 국정의 실질적 주도권을 쥐어 준다.

이 같은 정황상 최규하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확대조치에서 5·18로 연결되는 과정 및 사후 처리 등 역사적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5·18 집단 발포명령자, 공수부대 배치 및 강경진압 지시 배경, 광주 재진입 과정 등 5·18과 관련된 핵심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이런 의혹이 영원히 묻혀버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12·12 및 5·18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각도의 조사로 '입열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상당기간 회고록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회고록이 이미 완성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회고록이 아닌 '메모장'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역사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대통령'

8개월만에 하야 '최단명 국가 원수'

전문 외교관·국무총리 등 승승장구
'5·18' 직후 신군부 위세에 눌려 하야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직위가 최단명으로 끝난 '비운의 대통령'이었다.

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갑작스레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이듬해 5.18 사태로 대변되는 신군부의 집권으로 8개월여만에 하야, 혼란한 정국 속에서 한국 정치사의 중앙무대 뒤로 쓸쓸하게 퇴장해야 했다.

아호가 현석(玄石)인 최 전 대통령은 1919년 7월16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다. 경성제1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문과를 마친 뒤 만주국립대동학원을 졸업했다.

최 전 대통령은 해방되던 해인 45년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임용됐으나 이듬해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직생활에 첫 발을 디딘 뒤 51년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서리를 거쳐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발탁되면서 전문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52년 주일대표부 총영사, 59년 주일대표부 공사 및 외무부 차관, 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고문, 64년 말레이시아 대사를 거쳐 67년 제 14대 외무부 장관(67~71년)에 기용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71년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72년 11월과 7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조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기도 했다.

국제회의 참석만도 67년 22차 유엔총회 수석대표를 비롯, 30여회에 이를 정도로 한국 외교에 큰 족적을 남긴 역대 최고의 외교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의 서슬이 시퍼렇던 75년말 국무총리 서리를 거쳐 이듬해 국무총리로 임명돼 79년까지 4년간 국무총리직을 수행했으며 79년 10.26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올랐다.

그러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중심이 돼 5.18 사태가 터지는 등 혼돈의 회오리가 계속되면서 10.26 사태 이후 '서울의 봄'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위세에 눌려 그해 8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돈선거' 고질병 못고쳤지만

정후식 정치부 차장

10·25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과 장날 등이 겹친 21일과 22일 각 정당은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폈다. 정계 개편과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중대 변수로 떠오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 주자들도 재보선이 치러지는 세 곳을 하룻동안 모두 도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세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재보선에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보여준 구태는 주민들을 더욱 냉담하게 만들고 있다. 벌써부터 "재보선에서 만큼은 지역의 자존심을 찾아보자고 했건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대표적인 구태는 고질병인 '돈 선거'의 재연이다. 그것도 재보선이 치러지는 세 곳에서 모두 적발됐다. 자당에 우호적인 유권자 50여명에게 물품교환권을 나눠주거나(신안), 지지 후보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건네고(화순), 출마회견장에서 사례금을 돌린 후보 친척이 고발되기도(해남·진도) 했다.

또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인신 공격과 정치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화순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5·31 지방선거 당시 다른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놓고 후보들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남에서는 한 후보의 여당 입당 여부를 둘러싸고 유력 후보들간 진실 게임이 한창이다.

북 핵실험 파문 속에 유세 지원에 나선 각 당 지도부들의 발언 내용도 햇볕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치고 받기 아니면 '향후 정계 개편에서 주도권을 잡을 힘을 달라'는 식의 읍소가 대부분이다. 진실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후보들의 공약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다.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약속에도 불구 실현 가능성이 낮은 표심 자극용 정책이나 기존 시책을 재탕한 '헛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입으로는 '클린 선거' '정책 선거'를 외치면서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순지역 한 유권자는 "후보들에겐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없고 오로지 출세욕뿐인 것 같다. 지역을 이만큼 우세시켰으면 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선거는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책임있는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하지 않는가. 최선(最善)이 아니라면 차선(次善)이라도 찾아나설 수 밖에.

/who@kwangju.co.kr